폐기물 무단매립등 주원인

부처님의 지구 사랑

전 재 성 ㉒

지하수 오염 ㊤

부처님은 기세경(起世經)에서 땅의 대신(大神)이 "땅의 세계안에는 물, 불, 바람의 세계가 없다"라는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질책하여 "대신이여, 그대는 이제 그와 같은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왜냐하면 이 땅의 세계 안에는 실제로 모든 물, 불, 바람의 세계가 갖추어져 있으며 다만 그 안에 땅의 세계가 많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지하수는 땅의 세계속을 흐르는 강물이다. 지하수는 지표수가 토양층에 침투하여 형성된다. 토양층은 지표수를 정화시키고 식물에 물을 공급하는 통기대와 물이 가득차서 고여있는 포화대로 나누어진다. 지하수면은 이 통기대와 포화대 사이에 놓이는데 일반적으로 지하 30여미터 내에서 발견되지만 지하 수백미터에 해당할 경우도 있다.

현재 지상의 지표수가 중금속을 함유한,산성비를 비롯한 산업폐수의 무단방류, 폐기물의 무단 매립 등 각종 공해로 심하게 오염되고 있어, 토양층에 침수되는 지하수도 날로 그 오염의 심각도를 더해가고 있다.

특히 근본적으로 대기오염에서 유발되는 산성비는 통기대에서 정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흙속의 미네랄 성분 가운데 알미늄이온(Al^{+3})과 같은 중금속을 용해시켜 오염을 가중시킨다. 이 알미늄이온등 중금속으로 오염된 물은 지하 생태계를 파괴하여 많은 유익한 박테리아와 식물의 잔뿌리를 사멸시키며, 포화대속으로 들어가 유해한 지하수를 형성한다.

또한 분뇨처리장이나 농경지에서 나오는 질산염과 같은 비료성분은 토양과 반응해서 중화되지 않으므로 지하로 스며들어, 그 물을 먹은 어린이들을 청색증에 걸리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경기도 소래면에서는 지하수가 오염되어 주민들이 피부병, 설사, 요통등을 호소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과학기술원 조사에 따르면 지하수의 비소농도가 허용치인 0.05㎎/l의 다섯배 가량인 0.25㎎/l로 밝혀진 적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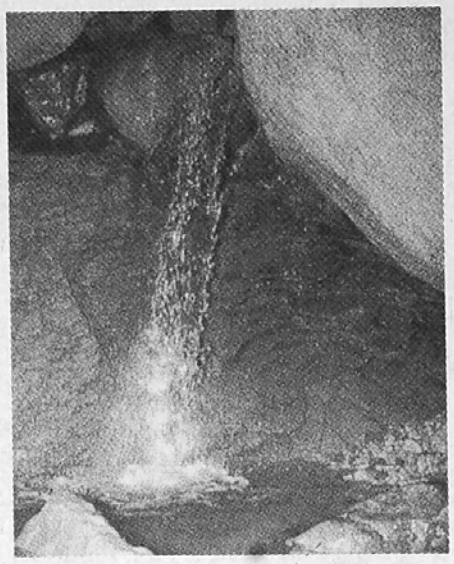
또한 최근에 경기도 일원에서 유리섬유의 무단방치와 매립으로 지하수가 오염되어 그 물을 먹은 주민들이 각종 암이나 피부병 및 괴질환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이 보도된 적이 있다. 1942년에서 1950년까지 미국에서 나이애가라 폭포 부근에 중단된 운하건설현장에 유독성 폐기물 2만2천톤을 매립했는데, 이 폐기물 침출수가 지하에 스며들어 그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 주민들은 1973~1978년 사이에 이 지역 출생아 가운데 2/3 이상이 정신박약과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선천성 기형아를 낳았다. 이 사건으로 미국정부는 1억달러 이상을 소모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그 마을은 유령도시로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평균 1,140억㎥의 강우량과 2,320억㎥의 지하수 자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적으로 물소비의 증가(1950년대의 3배 4,340㎞)로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초래하기 시작했다.

그 때문에 지표수 유입량의 감소와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지하수면도 급격히 하강하고 있다. 북경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 주변에서는 1년에 1~2m의 지하수면 하강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지하수 오염의 농도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암석의 깊은 층까지 침수되어, 정화시킬 산소가 희박한 곳에 도달함으로 자연적 분해나 미생물에 의한 정화가 일어나기 어렵고, 더구나 그것은 인위적으로 정화하기란 불가능해진다.

또한 지하수는 천이 속도가 매우 느려 1년에 1.5m 정도밖에 흐르지 않는 곳도 있어 오염물질이 씻겨내려가기까지 수십년 내지 수백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한국불교대 교수〉

식용땐 각종 암·기형아등 괴질 유발
일단 오염되면 정화 불가능



◇오폐수가 지표를 뚫고 땅속에 스며들면 지하수를 오염시켜 지하생태계와 인간생활에 큰 피해를 입힌다.

'95 신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금주의 주제
후원금 보내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바로 내 이웃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지금의 내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외면해 버리기 일쑤다.

경전을 보면 근기에 따라 베푸셨던 부처님의 점진적 설법들 가운데 '베품에 관한 말씀'이 제일 먼저 다뤄지고 있음을 자주 접하게 된다.

신체장애인 및 정신박약아들을 친자식처럼 돌보고 있는 천마재활원 원장 박근련씨는 "불자들이 보내주는 후원금은 원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돌보아 주고 염려해 주는 이들이 있다는 데에 안도하게 하며, 살아가는데 용기를 준다"고 말했다.

또 정신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 집 원장 혜진스님은 "큰 돈이 있어야만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후원금 보내기' 운동에 동참하는데 장애요인인 것 같다"고 지적하고 "정성스럽게 보내주는 한푼 두푼의 후원금이 내 이웃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오늘 보시하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미래에 대한 또 다른 보시행을 일으키는 인연이 될 수 있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후원금 보내기'를 "더 넉넉한 사람이 하겠지"라고 다른 사람의 몫으로 돌리기에 앞서 "내가 먼저 작은 힘을 보태자"는 마음으로 실천하길 바란다.

단순히 세상살이를 위한 복 짓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진심어린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베풀어보자.

'나와 이웃' 따뜻한 관계 체험하는 자비행
경전마다 나눔·보시정신 강조

아함경에는 '바르게 모은 재산을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이를 두 눈을 갖춘 사람으로, 모으기만 할 뿐 베풀지 않는 사람을 한쪽 눈밖에 없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다.

불교계에는 '나눔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 그 첫번째로 꼽히는 곳이 장애인, 고아, 무연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수용하고 있는 복지시설들이다. 교계의 경우 불자들의 정성어린 후원금을 필요로 하는 곳이 3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 30여개의 복지시설들은 정부 지원금, 운영자의 사비, 후원금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지원금은 기대치 이하를 맴도는 실정이고, 사비의 출연도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복지시설들은 불자들이 보내주는 후원금이 큰 힘이 된다.

신행수첩

더위로 풀린 몸 가다듬고
차생활문화원 가을 강좌

찌는 듯한 폭염과 장마비가 하루를 장식하는 여름.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풀어져 절도를 잃기 쉽다.

(사)한국차생활문화원(원장 감승희)을 두드리면 더운 여름을 현명하게 보낼 수 있다. 9월 2일 3시 가을강좌를 개강하는 한국차생활문화원의 이번 강좌에서는 전통예절은 물론 한국차 문화사, 행다실습, 차그릇 만들기(도요지 답사), 한복 바로입기 등을 강의한다.

또한 개강일에는 배오성 백상한의원 원장이 '공해시대의 체질관리와 차'라는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이다. (02)732-9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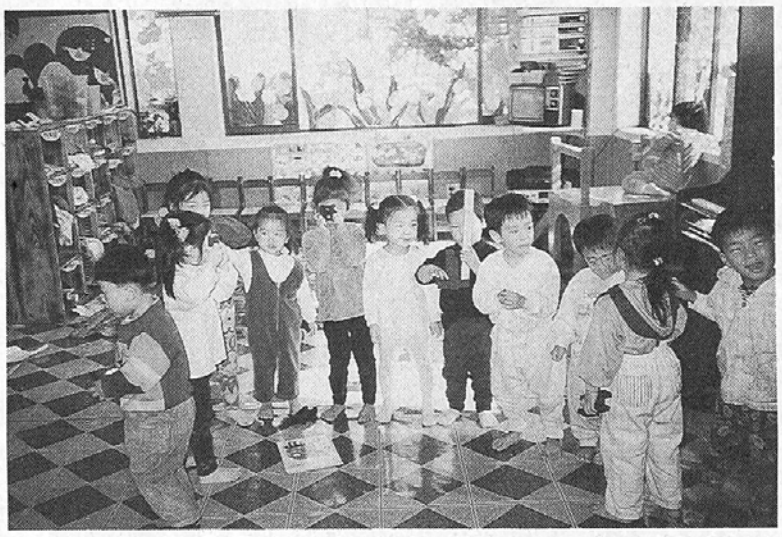
보금자리마련 하루찻집
햇님어린이집, 27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사랑 하나만으로 세상을 가꾸어 가는 사람들이 있다.

미아8동에 위치한 햇님어린이집은 온종일 아이들의 재잘거림으로 가득하지만 어려운 여건탓에 맘껏 뛰놀 수 있는 곳도, 더 풍족한 교육도구가 없는 것도 불자교사 두사람에겐 안타까운 일이다.

어린이들에게 보다 나은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햇님어린이집이 오는 27일 조계사앞 목마레스토랑에서 '보금자리마련 하루찻집'을 연다.

비영리 탁아소라 어려움이 많은 만큼 정성어린 도움이 필요하다. 하루찻집에 들러 백년대계의 동량을 위한 차 한잔도 꽤 의미있는 보시일 것이다. 이와 아울러 후원금이나 장난감, 동화책, 가정용품 등을 보내줄 회원도 모집중이다. (02)985-6920



◇미아8동 소재 햇님어린이집은 교사와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서로 합심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

호남 9산선문을 찾아
27일 광주불교교육원

신라말 고려초에 불교의 한 종파인 선종(禪宗)이 중국으로부터 유입하여 형성된 9개의 산문(山門)이 선종구산선문이다.

선종은 석가가 영산설법에서 말없이 꽃을 들자, 제자인 가섭만이 그 뜻을 알았다는 데서 기원하며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기 때문에 불심종(佛心宗)이라고도 한다.

광주불교교육원이 오는 27일 '호남지역 선종 산문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불교문화 유적답사를 떠난다. 이번 답사는 9산중 가장 먼저 개창한 실상산문 지리산 실상사에서부터 혜철스님의 법을 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동리산문 곡성 태안사의 온화함을 만난다.

또 한국불교의 역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지산문의 장흥 보림사와 3층으로 된 특이한 대웅전이 있는 사자산문 화순 쌍봉사를 거치며 9산선문의 숨결과 사상을 느낄 수 있다.

안내는 전문가 3명이 맡고 출발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후문에서 오전 8시30분. (062)228-9098

한여름밤의 추억 수놓아
불교어린이 글짓기대회

8월 중순이면 여름방학을 차분히 마무리해야 할 시기다. 엄마 아빠를 따라 시골집에 간 일, 시원한 바다나 계곡을 찾아 물장구를 치던 일, 시원한 선풍기바람 아래 책을 읽었던 일들을 추억삼아 화제로 거론할만 하다.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회(이사장 박용열) 부설 한국불교아동문학회(회장 김종상)에서는 국민학교와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제14회 전국불교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개최, 재미난 이야기들을 기다린다.

작품은 동요·동시·일기·기행문·편지글·독후감·논설문 등의 생활문, 기타 부분으로 나눠 9월30일까지 모집한다.

또 한국불교아동문학회에서는 단편동화, 동요·동시, 아동극, 소년소설 부문에 능력있는 신인작가의 작품도 10월10일까지 공모한다. (02)416-3346

구독신청 : 737-0693

감실불상등 신라천년 전설따라
신라문화원 경주남산 유적답사

천년역사의 숨결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경주. 그 경주이 진산인 남산은 산 전체가 법당이라 할만큼 골짜기마다 불상과 탑재가 자리하고 있다.

신라문화원에서는 9월3일 경주남산으로 유적답사를 떠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답사는 부처골바위속에서 잔잔한 미소로 다가오는 '감실불상'과 신라의 태동을 있게한 박혁거세 임금의 탄생지인 '나정', 그리고 역사의 뒷마당에서 아린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포석정' 등에서 천년의 전설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듯. (0561)771-1950

검찰수사권을 발동하라!!

— 단식에 들어가며 부산시민에게 드리는 글 —

우리 범어사 1백 20개 본·말사 대중은 그 동안 부산의 얼굴이요 정신인 금정산을 지키기 위해 범어사 입구 경동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당국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경동건설은 공사강행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정승가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어 **혼탁한 중생계를 정법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보살의 자비심으로 대중이 일치단결하여 뜻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결행하고자 한다.

1 금정산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부산시민 모두의 것으로 보존되어야 마땅하다.

하늘의 해와 달이 개인의 것이 될 수 없듯이 금정산 자연경관도 4백만 시민과 만인의 정신적 안식처로 만대에 길이 유전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이는 헌법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고 미적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과 일맥 상통하는 바이다. 이에 따라 **부산은 아시안게임과 함께 국제적 선진도시로 성숙할 시점**에서 우리가 숨쉬고 발을 딛고 사는 부산을 푸르고 쾌적한 도시로 가꾸는 데 모두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2 금정산 경동아파트 건립 저지에 범어사가 나섬은 수행자의 사명이요 역사적 도리이다.

오늘날 환경파괴로 인한 대재난의 징후는 국토와 지구촌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로서 우리도 선진국의 환경복구 노력을 주시해야 할 때이다. 범어사 대중은 국토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형사고가 인간의 생명을 업수히 여기고 조화보다는 파괴로써 자연을 극복하고자 하는 심성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환경파괴가 향후 대재난을 몰고올 것이라 직관하였다. 따라서 생명의 크나큰 집결체요, 유기체인 금정산이 특정 재벌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훼손당하는 것은 4백만 부산시민의 생명력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요, 1천 4백년 동안 국가의 안위를 위해 금정산에서 살아온 범어사에 직접적인 훼손을 가하는 것이다. 범어사 입구 금정산을 파헤치고 금정산을 가로막는 고층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범어사에 주어진 수행자의 사명이요 역사적인 도리인 것이다.

3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는 대중스님은 흠집없는 금정산을 후세에 물려주고 환경파괴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지난해 8월 본·말사 주지 회의에서 경동아파트 건립 저지를 결의한 이후 부산시청, 금정구청, 경동건설에 건의문을 발송하고 수차례 경내 규탄법회와 금정구청 앞 대규모 시위를 통해 아파트 건립 계획의 철회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음에도 당국의 미온적인 자세와 경동측의 공사강행이 이어지자 급기야 주지스님을 비롯한 수백 명의 사부대중이 공사현장에서 십수일째 침묵시위를 벌이게 되었으며 이런 와중에 청정승가의 화합을 깨고 승가를 비속화하려는 유언비어가 난무함에 따라 대중은 승가의 위상을 바로 잡고 일치단결하여 흠집 없는 금정산을 후세에 물려주고자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게 되었다.

4 아파트 건립계획 철회를 위한 당국의 성의 있는 노력과 검찰수사권 발동을 촉구한다.

범어사 대중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면서 향후 사태해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산문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지자체 선거전의 저지 결의대회 석상에서 「맹세코 아파트를 못 짓게 할 것」이라고 시민과 약속한 김진재, 곽정출 의원과 민자당 그리고 산지와 인접해 허가를 남발한 부산시 당국은 공히 아파트 건립 계획 철회를 위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과 인허가 과정에서의 많은 의혹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한 검찰수사권 발동을 촉구한다. 만일 이와 같은 민의가 관철되지 않을 시 내년 총선에서의 민심이반과 행정당국을 불신하는 불행한 사태가 야기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범어사 본·말사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 부산불교신도회
- 사단법인금정산보존회
- 공동체 의식개혁 국민운동부 산협의회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부산 Y·W·C·A
- 사단법인기러기문화원
-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 참여자치시민연합
- 홍사단부산지부
- 한국일본문제연구회
- 한국소비자연맹부산지부
- 부산불교문인협회
- 부산여성의전화
- 부산불교신도회
- 사단법인금정산보존회
- 공동체 의식개혁 국민운동부 산협의회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부산 Y·W·C·A
- 사단법인기러기문화원
-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 참여자치시민연합
- 홍사단부산지부
- 한국일본문제연구회
- 한국소비자연맹부산지부
- 부산불교문인협회
- 부산여성의전화
- 정신대문제부산협의회
- (통합)부산여성회
- 늘푸른시민모임
- 부산환경운동연합
- 불교환경연합
- 내일신문부산사업소
- 부산불교자비원
- 부산장애인사회문제연구회
- 부산Y·M·C·A
- 사단법인불국토
- 사회복지법인불국토
- 원불교부산교구